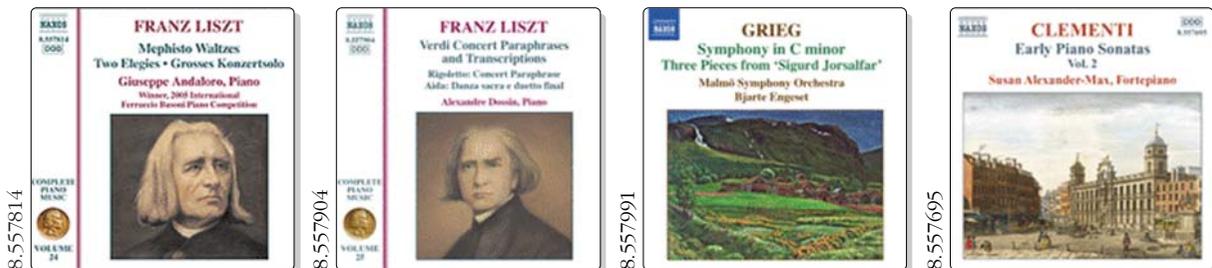




20 YEARS OF CLASSICAL MUSIC

Naxos new release

www.naxos.com



8.557814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전곡,
2개의 엘레지,
그로스 콘체르트슬로
주제페 안달로로 (피아노)

8.557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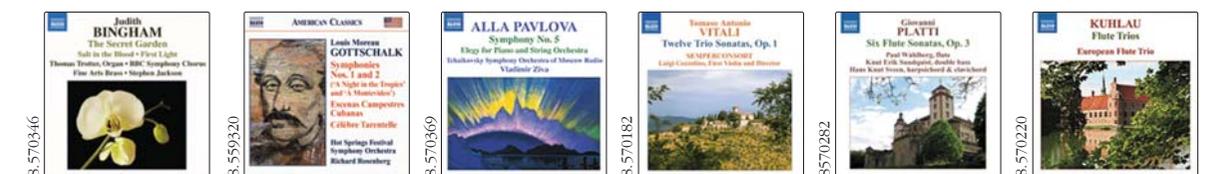
리스트:
베르디 오페라 파라프레이즈와 편곡작품들
알렉산드르 도신 (피아노)

8.557991

그리그:
교향곡 C단조, 옛 노르웨이
로망스, '지구르트 요르살파' 발레
말피 심포니 오케스트라
비야르테 앙게세트

8.557695

클레멘티:
5개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
수잔 알렉산더-맥스 (피아노)



8.570346

빙엄:
합창음악 (Secret Garden,
First Flights etc)
토마스 트로타(오르간)
파인 아조 브라스
BBC 심포니 합창단
스티븐 잭슨

8.559320

고트살크:
관현악작품 전곡
(교향곡 1, 2번 포함)
여러 연주자들
핫 스프링스 페스티벌 심포니
리처드 로젠버그

8.570369

파블로바:
교향곡 5번, 피아노와 현을
위한 엘레지
안드레이 코로베니니코프
핫 스프링스 페스티벌 심포니
리처드 로젠버그

8.570182

비탈리:
12개의 트리오 소나타 Op.1
쾨퍼콘서트

8.570282

플라티:
6개의 플루트 소나타 Op.3
페울 볼베르그(플루트)
크누트 슨크비스트(리플베이스)
한스 스펠(하프시코드)

8.570220

쿨라우:
5개의 플루트 트리오
유로피언 플루트 트리오



8.557848

부조나:
바이올린소나타 1, 2번,
4개의 바가텔 Op.28
조셀 린(바이올린)
벤저민 로엘(피아노)

8.559374

베르크:
현악사중주, 서정모음곡,
볼프:
이탈리아 세레나데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

8.559321

우리엔:
타악기 사중주, Taschi,
Fortune
뉴저지 퍼커션 앙상블,
더 그룹 포 컨템퍼러리 뮤직

8.570410

웨슬리:
오르간 작품집 (전주곡과
푸가, 코랄 송 etc)
제임스 맥비니
(렐버리 성 마이클 교회 오르간)

8.557834

에게:
피아노협주곡 2번 외
노르웨이 피아노음악들
호바르 임세(피아노)
트론하임 솔로이스즈
외위빈 임세

8.570347

바이타 문:
피아노작품집
(피아노소나타, 인터메조 외)
바이타 문(피아노)



8.570352

하웰스:
페트리릭 스펜서 경,
천국의 송가
러터(sop), 질크리스트(테),
윌리엄스(bar)
바호 콰이어, 분머스 심포니
데이빗 힐

8.570414

핀치:
젊은이의 충고, Till earth
outwears, Oh Fair to See
존 마크 애인즐리(테너)
이엔 번사이드(피아노)

8.570219

베베른:
피아노반주의 가곡 전집
스베틀라나 사벤코(소프라노)
유리 폴루벨로프(피아노)

8.559314

클래식 아메리칸 러브송
(거친, 바닐, 아틀랜, 슈워츠)
캐롤 팔리(소프라노)
존 콘스터블(피아노)

8.559312-13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6집
(이리안나의 탄식 포함)
렐리기에 무저케
마르코 롱기니

8.609014-15

하케:
The Greater Good
여러 가수들
클림머글래스 오페라
스튜어트 로버트슨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July 2007



New Release

60년대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수녀의 노래
수에르 수리르 노래하는 수녀

피아니스트 유미정의 슈베르트의 영혼

Cover Story

코간의 제자, 러시아 종건 바이올리니스트 **일리아 칼레르**

코간의 제자, 러시아 중견 바이올리니스트

일리아 칼레르 Ilya Kaler

일리아 칼레르는 1963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시벨리우스 콩쿠르,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우승했던 인물.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꿈꾸는 세계적 콩쿠르를 모두 석권했던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라는 사실로도 한때 세계 음악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칼레르의 천부적 재능은 일찌감치 나타났다. 모스크바 음악원의 중앙 영재 음악학교에 들어가 치나이더 길렐스(Zinaida Gilels)선생과 유리 안켈레비치(Yuri Yankelevich)선생한테 배우면서 칼레르는 바이올린 연주의 기초를 완벽하게 다졌다. 이후 레오니드 코간과 빅토르 트레티아코프(Viktor Tretyakov)선생과 공부하면서 보다 성숙한 바이올린 연주법을 익혔다. 학창시절 내내 두각을 나타냈던 칼레르는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코간 선생한테 많은 칭찬을 받았고, 일찌감치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칼레르는 지금까지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왔다. 그와 함께 했던 오케스트라는 레닌그라드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방송 오케스트라, 취리히 실내 오케스트라, 디트로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이다. 칼레르의 탁월한 기교에 주목한 음악언론은 한때 그를 하이페츠나 펠만 같은 대가들에 견주기도 했다. 물론 대단한 영광이다. 하지만 칼레르는 매스컴의 찬사에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켜왔다. 그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아시아까지 많은 연주여행을 했다. 2006년 가을에는 한국에도 와서 우리 바이올리니스트 이희연과 함께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를 독주자로 맞아 공연했던 지휘자들은 마리스 안손스, 드미트리 기타옌고, 발레리 게르기에프 등 현재 우리 음악계

를 주름잡는 저명한 인물들이다. 칼레르는 이스턴 음악학교, 인디애나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 교수로 재직했다가 현재는 시카고에 있는 드폴 음악대학의 교수로 있다. 칼레르는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해온 바이올리니스트다. 세계적인 음악페스티벌과 실내악 협회 콘서트에 참가해 유리 바쉬메트, 에마누엘 액스, 야노슈 슈타커, 드미트리 시트코베츠키, 바딤 레핀, 제라르 코세 등과 호흡함으로써 뛰어난 실내악 연주가로서의 모습도 보여줬다.

칼레르는 멜로디아와 나소스에서 적지 않은 음반을 냈는데, 현재 칼레르의 음반은 나소스에서 나온다. 지금까지 그는 브람스, 슈만, 쇼스타코비치, 글라주노프, 차이코프스키, 파가니니의 협주곡 등 많은 음반들을 발매했는데, 하나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그라모폰의 에디터스 초이스로도 등장해 널리 알려져 있는 브람스의 이중 협주곡 음반(8.550938)이 기억난다. 나소스의 간판 첼리스트인 마리아 클리겔과 함께 독주자로 출연한 이 음반을 통해 칼레르는 브람스의 대형 협주곡 안에서 펼쳐지는 실내악적 상상력의 묘미를 한껏 충족시켜준다. 웅장한 스케일의 관현악단에 걸맞게 에너지가 넘치지만 첼로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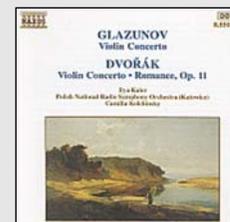
화할 때는 아주 우아하고 감미롭게 변신하는 재주가 특출하다. 칼레르는 이 명곡에서 바이올린이 첼로와 어떻게 어우러지며 대화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중후한 이 음반 덕분에 나소스는 목직한 이미지를 조금 더 보냈다. 그의 브람스 음반으로 또 하나 추천할만한 것은 바이올린 소나타 음반이다. 메이저, 마이너 할 것 없이 워낙 명반들이 많아 칼레르의 음반이 설 자리가 없는 듯하지만, 이 음반을 잘 듣다보면 어서 그를 위해 좌석 하나를 마련해줘야 할 것 같다. 긴 호흡의 패시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깊은 사색으로 뽑아내는 솜씨에 연신 감탄하게 되는 매우 인상적인 연주다. 3번의 아다지오 악곡



은 상당히 느리다. 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음반으로 더 알려진 것은 훨씬 덜 유명한 이자이의 음반(8.555996)이다. 매우 섬세한 감각, 놀랄만한 집중력,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는 이 음반은 아마 메이저 음반사에서 나왔으면 엄청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곡이지만 칼레르의 연주에서 테크닉 상의 결함을 찾으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다. 글라주노프의 바이올린 협주곡(8.550758)도 러시아 출신답게 가슴 뭉클한 슬라브적 정서를 한껏 표출하며 수준 높은 연주를 펼쳤는데, 같은 음반에 실린 드보르자크의 협주곡과 로망스는 더 탁월하다.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 두 곡을 안토니 비트의 지휘 아래 녹음한 음반(8.550814)에서도 칼레

르의 특유의 서정과 열정적인 테크닉이 빛난다. 파가니니 콩쿠르의 우승자로서 그의 유명한 파가니니 협주곡 두 곡을 담은 음반(8.550649)듣는 일은 매우 기쁜 일이다. 이 레퍼토리라면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명 녹음을 먼저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칼레르의 연주는 아카르도의 그것과 당당히 비교되기를 요구한다. 음색이 무척 우아할뿐 아니라 비르투오시티, 유희성, 경쾌한 리듬감각 등 파가니니 음악이 갖춰야 할 거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외 칼레르의 모든 음반들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찾아 들으면서 그 매혹에 빠져보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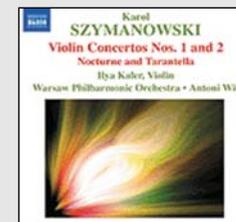
나소스에서 나온 일리아 칼레르(Ilya Kaler)의 음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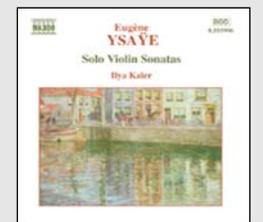
8.550758
GLAZUNOV /
DVORAK:
Violin Concertos in
A Minor



8.550717
PAGANINI:
24 Caprices, Op. 1



8.557981
SZYMANOWSKI:
Violin Concertos
Nos. 1 and 2
Nocturne and
Tarantella



8.555996
YSAYE:
Solo Violin Sonatas,
Op. 27

8.550938 BRAHMS: Double Concerto / SCHUMANN: Cello Concerto in A Minor

8.554828 BRAHMS: Violin Sonatas Nos. 1-3, Opp. 78, 100 and 108

8.554049 GLAZUNOV: Violin Concerto in A Minor / The Seasons

8.559451 JEWISH STRING QUARTETS

8.556680 PAGANINI (THE BEST OF)

8.550649 PAGANINI: Violin Concertos Nos. 1 and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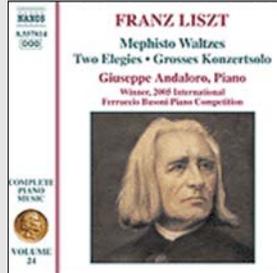
8.550870 SCHUMANN, R.: Violin Sonatas Nos. 1 and 2

8.550814 SHOSTAKOVICH: Violin Concertos Nos. 1 and 2

8.557690 TCHAIKOVSKY: Violin Concerto / Souvenir d' un lieu cher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814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전곡, 2개의 엘레지, 그로스 콘체르트솔로

주제페 안달로로 (피아노)

리스트의 파우스트교향곡은 괴테의 동명 걸작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지만, 피아노를 위한 4편의 메피스토 왈츠는 니콜라스 레나우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은 작품들이다. '마을 주막에서의 춤'이라는 타이틀의 1편은 관현악버전으로도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리스트 특유의 현란한 초절기교가 빛을 발하는 난곡이다. 외향적인 메피스토왈츠와 대비되는 내면적인 두 개의 엘레지가 음반의 밸런스를 적절히 맞추고 있다. 2005년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주제페 안달로로의 연주.



Naxos 8.570346

빙엄: 합창음악 (Secret Garden, First Flights etc)

토마스 트로터(오르간) / 파인 아츠 브라스 / BBC 심포니 합창단 / 스티븐 잭슨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주디스 빙엄은 BBC싱어즈와 BBC 심포니 코러스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체득했던 합창곡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걸출한 작품을 다수 발표했다. 영국 합창음악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한 'The Darkness is no darkness', '브라스 팡파르가 멋진 'The Snow descends' 등 합창곡에 대한 이 작곡가의 빼어난 재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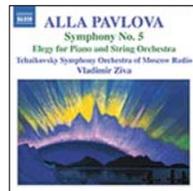


Naxos 8.559320

고트샬크: 관현악작품 전곡 (교향곡 1,2번 포함)

여러 연주자들 / 핫 스프링스 페스티벌 심포니 / 리처드 로젠버그

크레올(루이지애나의 프랑스-흑인 혼혈) 작곡가 고트샬크(1829-69)는 유럽에서 유명세를 떨친 최초의 신세계 음악가였다. 피아니스트로 활약하면서 쇼팽과 비교되는 명성을 누렸다. 작곡가로도 카리브와 남미의 이국적인 풍광을 담은 작품을 남겼는데, 교향곡 1번 '열대의 밤'과 2번 '몬테비데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타란텔라 등은 이러한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아베마리아'의 순정미도 인상적이다.



Naxos 8.570369

파블로바: 교향곡 5번, 피아노와 현을 위한 엘레지

안드레이 코로베이니코프(피아노) /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 / 블라드미르 치바

조성체계 중심의 보수적인 현대음악 애호가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의 여류작곡가 파블로바의 최신 교향곡. 이전 교향곡들에 비해 보다 가볍고 간결한 작품으로, 칸첼리나 페르트를 연상시키는 명상적인 속성을 담고 있다. 엘레지는 영화 'The American Healy'의 음악을 토대로 완성한 작품으로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 심금을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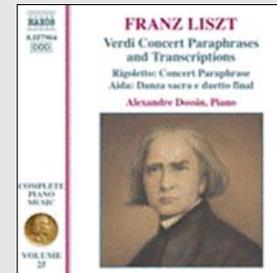


Naxos 8.570182

비탈리: 12개의 트리오 소나타 Op.1

첼피콘스트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1663-1745)는 '샤콘느' 한 곡으로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곡가이다. 최근 들어 '샤콘느'가 다른 사람의 작품일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곡가로서의 비탈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렐리의 영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의 트리오 소나타들은 작곡가로서의 그의 재능이 비범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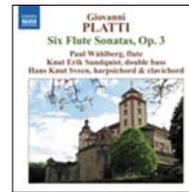


Naxos 8.557904

리스트: 베르디 오페라 파라프레이즈와 편곡작품들

알렉산드르 도신 (피아노)

리스트는 베토벤의 교향곡, 슈베르트의 가곡 등 수많은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했다. 자신과 활동시기가 거의 비슷했던 베르디의 오페라들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음반에는 '리골레토', '아이다', '일 트로바토레', '에루살렘-롬바르디 사람들', '돈 카를로', '시몬 보카네그라', '에르나니'의 선율을 토대로 리스트가 편곡한 기교적인 피아노 쇼피스들 일곱 작품을 담았다. 2003년 아르헤리치 콩쿠르 우승자인 브라질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도신의 연주다.



Naxos 8.570282

플라티: 6개의 플루트 소나타 Op.3

페울 볼베르그(플루트) / 크누트 스톱비스트(더블베이스) / 한스 스펠(하프시코드)

조반니 플라티(1692-1763)는 비발디의 제자로 추정되는 작곡가다. 1722년 이후 죽을 때까지 독일 뷔르츠부르크 궁정에서 오보이스트 겸 플루티스트로 활동했으며, 이들 악기를 위한 작품들을 다수 작곡하였다. 6곡의 플루트 소나타는 후기 바로크에서 초기 고전시대의 양식이 고르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작품으로 연주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한 기교지향적인 화려함이 돋보인다.



Naxos 8.570220

쿨라우: 5개의 플루트 트리오

유로피언 플루트 트리오

쿨라우(1788-1832)는 독일출신이지만,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정착하여 활약했던 작곡가다. 전문적인 플루트연주자는 아니었음에도 이 악기를 위한 다수의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는데, 3대의 플루트라는 이색적인 편성을 위한 이 작품들 역시 이 악기의 특성과 매력을 충분히 활용한 작품들이다. 세계적인 플루트연주자 막상스 라리의가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결성한 유로피언 플루트 트리오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848

부조니: 바이올린소나타 1,2번, 4개의 바가텔 Op.28

조셉 린(바이올린) / 벤저민 로엠펜(피아노)

부조니는 19/20세기의 전환기를 대표했던 뛰어난 피아노 비르투오조였지만, 작곡가로서는 피아노 장르 뿐만 아니라 오페라, 관현악곡,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바이올린소나타 1번이 독일 낭만주의의 영향을 짙게 드러내는 반면, 바이올린소나타 2번은 이 작곡가의 개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다. 4개의 바가텔은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대중적인 선율들을 토대로 완성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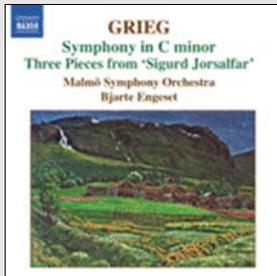


Naxos 8.557374

베르크: 현악사중주, 서정모음곡, 볼프: 이탈리아 세레나데

뉴질랜드 현악사중주단

베르크가 현악사중주 편성을 위해 완성한 두 작품을 함께 담았다. 1910년에 완성된 현악사중주는 무조음악에 발을 막 담그던 시점의 작품. 자신의 금지된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한 서정 모음곡은 짝수 점절 빨라지는 홀수 악장과 점점 느려지는 짝수악장이 엇갈리게 배치된 독특한 작품. 볼프의 이탈리아 세레나데는 보다 유명한 관현악버전의 오리지널 버전이다.



Naxos 8.557991

그리그: 교향곡 C단조, 옛 노르웨이 로망스, '지구르트 요르살파' 발췌

말외 심포니 오케스트라 / 비아르테 앙에세트

그리그가 20세때 완성한 그의 유일한 교향곡은 작곡가로부터 절대연주금지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불운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베토벤, 멘델스존, 슈만의 영향이 녹아든 이 교향곡은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매력적인 작품이다. 극부수음악 '지구르트 요르살파'에서 발췌한 세 개의 관현악 소품과 노르웨이 옛 선율에 기초한 로망스와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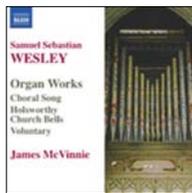


Naxos 8.559321

우리넨: 타악기 사중주, Tashi, Fortune

뉴저지 퍼커션 앙상블, 더 그룹 포 컨템퍼러리 뮤직

찰스 우리넨은 비르투오조를 위한 기교적인 작품들을 즐겨 쓴 작곡가다. 수록곡 중 'Tashi'와 'Fortune'은 유명한 현대음악 앙상블 타시를 위해 완성한 작품들. 급진적인 'Tashi'와 보다 온건한 'Fortune' 상반된 성격의 두 작품이 만들어내는 대비가 흥미롭다. 타악기 사중주는 타악기에 대한 이 작곡가의 애정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타악기의 신선한매력을 만끽하게 하는 작품이다.



Naxos 8.570410

웨슬리: 오르간 작품집 (전주곡과 푸가, 코랄 송 etc)

제임스 맥비니(텐버리 성 마이클 교회 오르간)

사무엘 웨슬리(1810-1876)는 영국의 유명한 음악가 및 종교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큰할아버지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할아버지 찰스 역시 찬송가 작곡가로 유명하다. 사무엘은 같은 이름의 아버지와 더불어 당대의 대표적인 오르가니스트로 활약하였다. 영국 유명 교회의 오르가니스트 자리를 섭렵하면서 바흐의 전통에 충실한 오르간 작품들을 다수 완성하였다.



Naxos 8.557834

에게: 피아노협주곡 2번 외 노르웨이 피아노 음악들

호바르 임세(피아노) / 트론하임 솔로이스츠 / 외위민 임세

자국의 민속음악에 영향을 받은 20세기 노르웨이 피아노 작품들을 함께 담았다. 에게의 피아노소나타란 중세 전설과 전통선율에서 영감을 얻었고, 피아노협주곡 2번 역시 민요선율에 기반을 두었다. 베르크의 노르웨이춤곡 2번, 후름의 소품, 그리그의 '태양신부와 뱀왕' 모두 이 나라의 전통선율에 기초한 작품들이다. 새롭게 발췌된 트베이트의 작품 '웨딩벨'의 최초녹음을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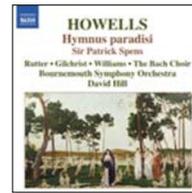


Naxos 8.570347

베아타 문: 피아노작품집 (피아노소나타, 인터메초 외)

베아타 문(피아노)

한국계 미국 작곡가인 베아테 문(1969년생)은 음악사 전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음악사조의 작품을 뒤섞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왔다. 피아노소나타는 자신의 쾌활한 개성을 고전적인 장르의 틀 속에 효과적으로 담아낸 작품. 'Submerged'는 스크리아빈이나 온스타인의 영향이 느껴지는 기교지향적인 작품. 'In Transit'은 뉴욕의 일상을 재치있게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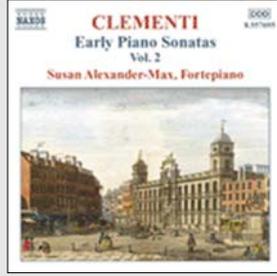


Naxos 8.570352

하웰스: 패트릭 스펜서 경, 천국의 송가

러터(sop), 질크리스트(te), 윌리엄스(bar) / 바흐 라이어 / 본머스 심포니 / 데이빗 힐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국 합창음악 작곡가였던 허버트 하웰스의 두 대작을 함께 담았다. '천국의 송가'는 아들의 죽음 직후의 비통한 심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걸작으로, 가톨릭 레퀴엠 전례를 적절히 활용한 독특한 구성과 치밀한 다성음악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인상적이다. '패트릭 스펜서 경'은 이 녹음에 앞서 딱 한 번 공연되었을 정도로 잊혀졌으나, 작품에 내재된 에너지와 선율의 아름다움이 상당한 작품이다.



Naxos 8.557695

클레멘티: 5개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 (1781-84)

수잔 알렉산더-막스 (피아노)

작곡가 겸 뛰어난 비르투오조였던 클레멘티는 빈에서 모차르트와 연주대결을 펼쳤을 정도로 당대에 명성이 자자했던 음악가였다. 그는 백편이 넘는 건반소나타를 남겼는데, 본 음반에는 1780년대에 완성된 초기작 5편을 수록하였다. 피아노의 표현능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했던 이 작곡가의 재능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로, 아름다운 칸타빌레와 기교과시용의 현란한 패시지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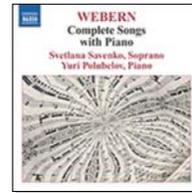


Naxos 8.570414

핀치: 젊은이의 충고, Till earth outwears, Oh Fair to See

존 마크 애인즐리(테너) / 이언 번사이드(피아노)

20세기 영국 가곡 분야의 가장 위대한 이름인 제러드 핀치. 그는 특히 토마스 하디의 시를 텍스트로하여 주옥같은 걸작들을 다수 남겼다. 핀치 가곡 시리즈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음반인 본작에는 일장춘몽과 같은 인생을 노래한 '젊은이의 충고'와 'Till Earth outwears' 외에도 사후에 출판된 'Oh Fair to See'가 함께 수록되었다. 영국을 대표하는 정상급 테너 존 마크 애인즐리의 미성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한다.



Naxos 8.570219

베베른: 피아노반주의 가곡 전집

스베틀라나 사벤코(소프라노) / 유리 폴루벨로프(피아노)

베르크와 더불어 쇤베르크 문하의 대표적인 작곡가였던 베베른은 생애전반에 걸쳐서 가곡들을 작곡했다. 따라서 본 가곡 음반을 통해 전통적인 낭만음악의 영향력 아래 있던 이 작곡가의 초기부터 무조에 기반을 둔 실험적인 작품들에 치중했던 만년의 작풍까지를 자연스레 훑어볼 수 있다.



Naxos 8.559314

클래식 아메리칸 러브송 (거쉰, 바일, 아를렌, 슈윙츠)

캐롤 팰리(소프라노) / 존 콘스터블(피아노)

1920-50년대 가장 미국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던 네 작곡가(조지 거쉰, 쿠르트 바일, 해롤드 아를렌, 아서 슈윙츠)의 개성적인 노래들을 모았다. 특히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쿠르트 바일의 노래 4곡은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었다. 재즈, 카바레음악, 흑인영가, 청교도 찬송가 등이 교묘하게 혼합된 이들 작곡가들의 노래들은 미국식 용광로(melting pot) 문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Naxos 8.555312-13

몬테베르디: 마드리갈 6집 (아리안나의 탄식 포함)

델리타에 무지개 / 마르코 롱기니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 6집은 르네상스시대의 작품인 Stile antico로 씌어진 작곡가의 마지막 마드리갈 작품집이다. 사별한 부인에 대한 절절함을 담은 '세스티나'와 후일 오페라에 전용된 유명한 대작 '아리안나의 탄식'이 이 작품집 속에 포함되어있다. 아울러 본 음반에는 후일 모노디 형태의 솔로버전으로 편곡된 버전까지 함께 수록함으로써, stile antico와 stile moderno의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게끔 배려하였다.



Naxos 8.669014-15

하케: The Greater Good

여러 가수들 / 글림머글래스 오페라 / 슈튜워드 로버트슨

스티븐 하케(1952년생)의 'The Greater Good'은 모파상의 상징주의적 단편결작 '부계당어리' (Boule de Suif)에 기초한 2막 오페라다. 보불전쟁 직후 무기력에 빠진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신분계층 간의 갈등과 위선을 다룬 작품으로, 개성이 뚜렷한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다양한 사조의 작품을 동원하여 음악으로 표현해내었다. 글림머글래스 오페라의 위촉작품으로 세계초연 레코딩이다.



Naxos 8.111095

로테 레만: 리트 레코딩 vol.4 (1941년)

바그너: 베젠통크 리트, 브람스 & 볼프: 리트

미국에서 활동하던 시절 남긴 레만의 독일 리트 녹음들 중 바그너, 브람스, 볼프의 작품을 함께 담았다. 이들 작곡가들의 리트들은 레만의 벨벳과 같이 부드러운면서도 감각적인 음성과 멋진 공함을 보여준다. 브람스의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풍부한 표정변화나 볼프의 'Gesang Weylas'에서의 우아한 감성, 바그너 '베젠통크 리트'에서의 텍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 등 위대한 여가수의 비범한 재능을 실감하게 된다.



Naxos 8.111311-12

The Best of Gilbert & Sullivan

전함 피나포르테, 미카도, 곤돌리어, 이올란테, 이다 공주, 펜찬스의 해적 외

길버트(대본)와 설리반(작곡) 콤비가 내놓은 여러 오페레타들은 영국 대중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19세기 후반을 풍미했다. 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사보이극장주였던 도올리 카트였다. 그가 이끌던 오페라단은 20세기 중반까지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의 전통을 이어왔다. 본 음반에는 1948-54년 도올리 카트 오페라 컴퍼니가 공연한 길버트&설리반 오페레타의 하이라이트를 엄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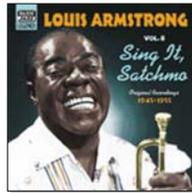


Naxos 8.120831

쿠르트 바일: Songs

로테 레나, 베르톨트 브레흐트, 쿠르트 바일, 버디 클락, 루이 암스트롱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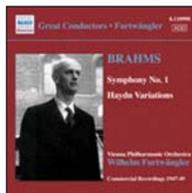
서풍짜리 오페라'로 유명한 유대계 독일 작곡가 쿠르트 바일의 대표적 노래들을 엄선하였다. 한때 아내였으며 바일의 또 다른 분신이었던 로테 레나의 노래는 물론, 바일의 든든한 동료이자 '낮설게 하기'로 연극계에 일궜을 그였던 브레히트가 노래하는 'Mack the Knife'도 들을 수 있다. 'Mack the Knife'의 유명세에 한 몫을 했던 루이 암스트롱의 걸걸한 음성 또한 함께 담았다.



Naxos 8.120818

루이 암스트롱: Sing it, Satchmo

Jodie Man / I Wonder / That's My Desire / Blueberry Hill / That Lucky Old Sun / C'est si bon / La Vie en rose / My Sweet Hunk O' Trash / You Rascal You / I Get Ideas / Gone Fishin' / A Kiss to Build a Dream On / Because of You / Kiss of Fire / When It's Sleepy Time Down South / Takes Two To Tango / The Whiffenpoof Song, "The Boppenpoof Song" / Skokiaan / Mack The Knife / Ain't Misbeha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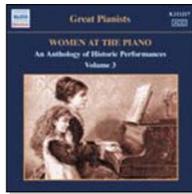


Naxos 8.110998

브람스: 교향곡 1번, 하이든 변주곡 (1947, 1949년 녹음)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연주금지해제된 바로 그해에 빈에서 남긴 교향곡 1번의 녹음은 푸르트벵글러가 스튜디오에서 남긴 대표적인 브람스 교향곡 음반이다. 그간 테스타먼트, 프라이저 등의 전문 복각레이블을 통해서도 발매되었던 음원이나, 워드 마스톤의 빼어난 복각을 거친 이번 발매반 역시 푸르트벵글러 마니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1949년 역시 스튜디오 녹음인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커플링되었다.



Naxos 8.111217

Women at the Piano Vol.3

투렉, 네이, 하스킬, 레브, 로리오, 체르니 슈테판스카, 발렌치, 라이젠베르크 외

20세기 전반기에 활약했던 피아노 위의 위대한 여사제들을 훑고 있는 'women at the piano' 시리즈의 세 번째 음반. 바흐 여전도사 로잘린 투렉의 영국 모음곡, 하스킬의 하이든 변주곡, 남편 메시앙의 작품을 연주한 이본 로리오, 체르니-슈테판스카는 자신의 장기와도 같은 쇼팽을 연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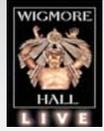


Dacapo 8.226064

닐센: 실내악작품집 Vol.1 (피아노트리오, 목관오중주 외)

다이아몬드양상블렛 / 트리오 온디네

1922년에 작곡된 목관오중주는 동일장르의 작품들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걸작이다. 클라리넷과 오보에를 위한 환상소품들은 각 악기들의 개성을 잘 뒷받침하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며, 호른을 위한 칸토 세리오소 역시 독주악기의 매력을 적절히 드러낸 작품이다. 실내악 모음곡 '어머니' 중에서 발췌한 세 개의 소품들이 음반을 아름답게 마무리한다. 관악기 애호가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이다.



Wigmore Hall Live Se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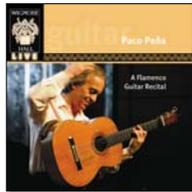


WHLive 0015

로베르트 홀 리트 리사이틀 (피아노 반주 - 로저 비놀스)

슈만: 리더크라이스 Op.39, 피츠너: 4개의 가곡, 브람스: 4개의 엄숙한 노래 Op.121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베이스-바리톤 로베르트 홀의 2004년 12월 7일 리트 리사이틀 실황. 홀은 빈 슈타츠오페라, 바이로이트, 베를린 슈타츠오페 등을 누볐던 오페라계의 스타였을 뿐만 아니라 독일 리트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슈만과 브람스의 유명 리트 외에도 독일 후기 낭만음악의 마지막 거장 중 한 사람인 피츠너의 가곡을 만나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WHLive 0016

파코 페냐 플라멩코 기타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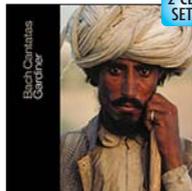
2006년 12월 6일 위그모어홀 실황

명실상부한 이 시대 최고의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파코 페냐의 최신 실황 음원. 아르헨티나 탱고의 세계화에는 피아졸라라는 거물의 힘이 있었다면, 스페인 플라멩코의 현대화 및 세계화에는 파코 페냐가 동등한 역할을 해왔다. 체계적인 음악교육 없이도 한 분야의 정상에 올랐던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섬세한 노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정수를 이 실황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www.monteverdi.co.uk/recordings

Soli Deo Gloria (SDG)



SDG 131

바흐 칸타타 순례 Vol.23 (부활절 후 1, 2번째 주일을 위한 칸타타)

그러나 같은 안식일 저녁에 BWV42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BWV67
나는 선한 목자라다 BWV85
들어라, 이스라엘의 목자여 BWV104
주는 나의 참된 목자 BWV112
주여, 당신을 원합니다 BWV150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BWV158

질리안 키스, 캐서린 퍼지(sop) / 다니엘 테일러, 윌리엄 타워스(alt) / 찰스 다니엘스, 노버트 메인(te) / 스티븐 바코(bass) / 몬테베르디 합창단 /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 존 엘리엇 가디너

신보의 첫 CD는 2000년 4월 바흐의 첫 부임지였던 아른슈타트의 신교회(Neue Kirche-현재는 바흐 교회)에서의 실황을 담았다. BWV150은 신교회를 위해 완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흐의 극초기 칸타타이다. 걸출한 코랄 판타지로 시작되는 BWV67은 생기로운 리듬과 약동하는 에너지로 충만한 작품. 두 번째 CD는 2000년 5월 룩셈부르크 에흐터나흐 페스티벌의 오프닝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BWV104는 상승하는 듯한 음조 배열이 인상적이며, BWV112는 유명한 시편 23편의 텍스트를 음악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표현해낸 바흐의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naxos.com

LPO



LPO 0097

런던 필하모닉 창립 75주년 기념 음반 VOL.1

4CD for 3CD
토마스 비첨 - 모차르트: 교향곡 35번, 미사 C단조 발레, 시벨리우스: 템페스트 외
에두아르드 판 베이눔 - 말러: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브람스: 하이든변주곡 외
에드러인 볼트 - 시벨리우스: 엔 사가, 본월리우스: 나르는 종달새, 헨델: 왕궁의 불꽃놀이, 브람스: 대학축전서곡 외
아나톨 피스톨라리 - 하차투리안: 바이올린협주곡 & 피아노협주곡 (루지에도 리치 & 모라 립파니)

런던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의 하나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창립 75주년 기념 음반. 이 악단의 초기를 이끌었던 네 거장의 녹음을 담았다. 창립자이자 첫 상임지휘자였던 토마스 비첨과 악단의 첫 황금기를 이끌었던 에드러인 볼트 외에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악단의 초기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던 에두아르드 판 베이눔과 아나톨 피스톨라리가 그 주인공들. 볼트의 레코딩은 대부분 최초로 발굴된 음원들이며, 루지에도 리치와 모라 립파니 두 거장과 협연한 피스톨라리의 하차투리안 협주곡집은 역사적인 텍카의 음원을 재발매한 것이다. 비첨과 베이눔의 두 음반은 이미 각각 개별적으로 출시된 바 있다.



www.mdg.d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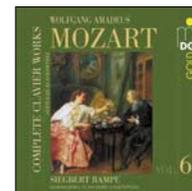


MDG 643 1454-2

베토벤: 영웅교향곡 (리스 편곡), 피아노 사중주 Op.6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

실내악으로 만나보는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베토벤의 애제자였던 페르디난트 리스가 이 걸작 교향곡을 피아노 사중주 편성으로 편곡한 버전을 수록하였다. 함께 수록된 Op.16 역시 피아노와 목관을 위한 오중주를 작곡가 자신이 피아노사중주 편성으로 편곡한 버전이다. 모차르트 피아노 사중주단의 견실한 연주는 편성의 차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큰 음악적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MDG 341 1306-2

모차르트: 소나타 K13, 15, 282, 변주곡 K613, 서곡 K399

지그베르트 램페 (하프시코드, 클라비코드, 포르테피아노)

포르테피아노, 클라비코드 그리고 2종류의 하프시코드를 동원하여 모차르트의 건반작품 전체를 섭렵 중인 독일의 중견 건반악기 연주자 지그베르트 램페의 모차르트 시리즈의 6번째 음반. 모차르트가 9살 되던 해인 1765년 런던 연주여행 기간 중 완성된 두편의 소나타(K 13, 15)와 작곡가의 마지막 피아노작품인 8개의 변주곡 K613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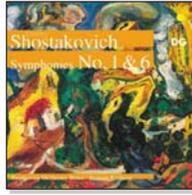


MDG 307 1430-2

드뷔시, 포레: 현악사중주 & 카플레: 콩트 판타스티크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 마리 피에르 랑글라메 (하프)

프랑스 특유의 우아하고 세련된 에스피리를 머금은 세 편의 실내악 걸작을 함께 수록하였다. 실내악 명가 MDG의 간판 아티스트들이 라이프치히 사중주단은 이미 라벨, 타이유페르, 미요의 실내악을 담은 음반(307 1359-2)을 통해 프랑스 근대음악에 대한 뛰어난 해석을 펼친 바 있다. 드뷔시의 세련미, 포레의 우아함도 특별하지만, 하프의 색채적인 활약상이 돋보이는 카플레의 콩트 판타스티크가 음반의 격을 드높였다.



MDG 337 1207-2
937 1207-6 (SACD)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1번 & 6번

로만 코프만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사이클의 일곱번째 음반. 학창시절 발표되어 청년 작곡가의 천재적인 재능을 과시했던 교향곡 1번과 그로부터 13년 후 소비에트 리얼리즘의 획일성에 대한 반감을 작품 내면을 통해 은밀히 표출했던 의미심장한 작품인 교향곡 6번을 함께 수록하였다. MDG가 자랑하는 최고의 음향을 반짝하게 될 것이다.



MDG 601 1444-2
931 1444-6 (SACD)

마르탱: 코르넬 크리스토프 릴케의 사랑과 죽음의 노래

크리스티안 슈토티만 (알토) / 약 판 스텐(지휘) / 빈터투르 무지컬레기움 오케스트라

마리아 릴케의 유명한 산문시를 토대로 완성한 본 성악작품은 스위스 작곡가 마르탱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르탱은 자신의 억눌린 자아의식을 전쟁 중의 군인의 이미지를 빌려서 표현해내었던 릴케의 이 작품을 통해 2차 대전 중의 혼란상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전쟁의 혼란과 몽환적인 의식세계를 표현해낸 작곡가의 독특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텍스트의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낸 보컬의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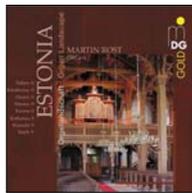


MDG 606 1427-2

리스트: 바흐 주제의 전주곡과 푸가, 레거: 소나타 외

미카엘 신하이트 (메르제부르크 대성당 오르간)

메르제부르크 대성당의 오르간을 통해 세계 최초로 연주되었던 세 작품을 다시금 이 오르간을 통해 녹음한 의미심장한 음반. 1856년 초연된 리스트의 바흐 주제의 전주곡과 푸가는 위대한 옛 선배에 대한 리스트의 경모의 마음을 가득 담은 작품. 이듬해 발표된 로입케이 시편 94 소나타는 종교적인 숭엄함을 청각화한 작품이다. 음울한 색조가 인상적인 레거의 소나타 2번은 1902년에 초연된 작품이다.



MDG 319 1431-2

에스토니아의 오르간으로 연주하는 이 나라의 오르간 작품들

마르틴 로스트 (탈린, 시우나, 캐즈무, 클라미, 키헬코나 등의 오르간들)

세계 각국의 유명오르간들을 순례해온 오르간 랜즈스케이프 시리즈의 새 음반. 발트 연안의 나라 에스토니아가 자랑하는 9대의 오르간들을 각 악기들의 상세한 스펙과 사진을 곁들여서 소개한다. 아울러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들(뤼디히, 쉬다, 트로베, 밀리안, 베르그너, 토비아스, 아로, 호이어 등등)이 남긴 진귀한 오르간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MDG 613 1451-2

슈톡하우젠: 베이스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

볼커 헨켈 (베이스 클라리넷), 슈테판 솔라이어마허 (피아노)

슈톡하우젠은 현대음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물로 특히 음열주의와 전자음악 분야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본 음반은 그의 주요한 피아노연작인 클라비어슈티크 시리즈와 베이스 클라리넷 독주를 위한 작품들. 그리고 베이스 클라리넷과 피아노, 그리고 장난감 피아노와 뮤직박스 등을 동원하여 12궁도를 음악으로 표현한 독특한 작품인 Tierkreis를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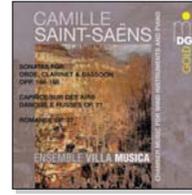


MDG 645 1404-2

스트라빈스키, 토흐, 힌데미트, 안테일 외: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음악들

보젠도르퍼 그랜드 피아노 + 아미코 플레이어 피아노 메커니즘

플레이어 피아노 시리즈의 4번째 음반. 플레이어 피아노는 천공된 테이프의 기록을 통해 피아노를 연주케 하는 기계연주 장치로 세기 전환기의 많은 작곡가들이 이 독특한 메커니즘을 위해 다양한 작품을 남겼다. 본 음반에는 스트라빈스키, 힌데미트, 토흐, 말리피에로, 뒤샹, 안테일 등이 이 기계장치를 위해 완성한 오리지널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색다른 피아노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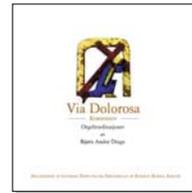


MDG 304 0395-2

생상: 오보에소나타, 클라리넷소나타, 바순소나타, 외

양상블 빌라 무지카

이 음반에 수록된 관악기들과 피아노를 위한 실내악 작품들 역시 희귀한 작품들이지만, 생상 특유의 화려하고 유려한 선율과 낭만적인 감성이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특히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가 들려주는 의외의 포근한 아름다움과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로망스의 우아한 감성은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는 애호가들에게 숨겨진 보석으로 다가올 것이다. 팡파르 - 적극 추천 음반



FXCD 318

비외른 안도르 드라게: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

오르간 명상곡들

이 오르간 작품들은 부활절의 극적인 메시지에 담긴 매혹적인 분위기를 담아 만들었다. 메시지는 모두 매혹적인 CD북에 있다. 비외른 안도르 드라게는 뉘른베르크 교회 오르간으로 14개의 명상곡들을 썼다.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고통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음악은 예술가의 자유롭고 표정이 많은 복합적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수난의 찬가들에서 나온 익숙한 선율들이 많다. CD는 뉘른베르크 교회에서 에릭 힐레스타드가 녹음한 것이다. 십자가의 길에 관한 이야기는 명상적이고 따스한 음성의 내레이터가 준비했다. 처음 얘기를 들려주면서 4세기에 수립된 전통 이래 많은 유명한 화가들을 매혹시켰던 주제들이다.

1999년에 구나르 토르분트는 십자가를 진 예수의 행로를 표현한 Korsveien(십자가의 길)이란 타이틀의 연작 그림을 창작해서 뉘른베르크 교회에 바쳤는데, 그 전 시리즈가 이 음반에 담겨있다. 2006년 레이둔 매젤 콜비크의 연작시도 토르분트의 그림에 추가되었다. "Via Dolorosa"에서, 비외른 안도르 드라게의 오르간 즉흥곡들은 구원의 문제와 시편에 대한 자유로운 기악 코멘트로서의 기능을 한다. 2002년 제작된 오르간으로 연주되었다.

비외른 안도르 드라게는 트롬쇠 대학 오르간 교수다. 노르웨이 음악원을 졸업한 후 1984년 오슬로 콘서트홀에서 데뷔했다. 많은 나라에 가서 콘서트를 열었고 많은 장르의 즉흥곡들을 연주하기를 좋아하는 그는 현대 음악 작곡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FXCD 319

트리베 다만 : 클라르(준비되었어요)

경쾌한 '서머 투르바투르 팝'을 포함한 데뷔 앨범

사랑받는 팝 명곡들을 사적인 모임에서 아주 개성적으로 잘 불렀던, 트루바두르 음악에 어릴적부터 친숙해있는 트리베 다만이 이제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들을 담은 첫 앨범을 출시했다. 앨범 타이틀 "준비되었어요"란 그가 싱어 송라이터의 영역에 커다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유머와 낭만성을 타고난 인물이다. 그는 장르의 벽을 허문 사람이다. 아마 그는 트루바두르 팝을 부르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의 노래들은 분명히 높은 인기를 모을 것이고 우리 마음속의 본능적 충동을 부추길 것이다.

[이 음반에 들어있는 노래들]

- 토마토와 모차렐라 치즈가 들어있는 치아바타 / -당신을 너무 사랑해
- 호랑나비 과거로 날아가다 / -식료품 저장고 속의 음악
- 당신과 함께 / -문을 좀 열어주세요
- 마음속의 블루스 / -여름비 사이로 비친 태양
- 아직 배고파요 / -기적
- 산딸기 / -그건 도움이 된다
- 타고 남은 재




Naxos 8.557430

브람스: 교향곡 3번,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마린 알소프
대서양 양단을 오가며 음악계의 우면파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마린 알소프, 본머스 심포니에 이어서 볼티모어 심포니의 차기 음악감독으로 임명되면서 성별을 초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는 나소스가 자랑하는 간판급 지휘자이기도 하다. 알소프가 진행 중인 브람스 교향곡 사이클의 세 번째 음반이 출시되었다. 교향곡 3번은 일명 브람스의 영웅교향곡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당한 스케일과 호쾌한 박력이 돋보이지만, 2,3악장에서의 감미로운 선율미 역시도 각별한 작품이다. 작곡가의 인기 관현악의 하나인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70033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클레어 러터(sop), 톰 랜들(te), 마르쿠스 아이헤(bar), 본머스 심포니와 합창단 / 마린 알소프
마린 알소프가 오르프의 대표적인 걸작이자, 20세기에 완성된 가장 유명한 합창곡의 하나인 〈카르미나 부라나〉에 도전하였다. 중세의 무명가객들이 남긴 세속적인 노래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편곡한 이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리듬과 군더더기 없는 진솔한 서법을 통해 조연 직후부터 지금까지 유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작품의 시작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합창곡 '오 행운의 여신'이 영화 〈엑스칼리버〉와 각종 CF 및 방송배경음악으로 너무나 친숙해진 작품이다.



Naxos 8.111242-43

베르디: 리골레토
마리아 칼라스, 티토 곱비, 주제페 디 스테파노 외 / 라 스칼라 오페라 / 톨리오 세라핀
1955년에 녹음된 이 음원은 전무후무한 가장 위대한 '리골레토' 레코딩으로 손꼽혀왔다. 티토 곱비, 마리아 칼라스, 주제페 디 스테파노로 이어지는 무적의 삼각편대와 거장 톨리오 세라핀의 노련한 지휘가 만들어낸 '리골레토'의 상징과도 같은 이 음반이 마크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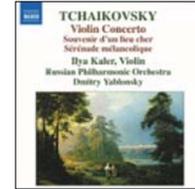
Naxos 8.111240-41

베르디: 아이다
마리아 칼라스, 리처드 터커, 페도라 바르비에리, 티토 곱비 / 라 스칼라 오페라 / 톨리오 세라핀
아이다는 노르마, 비올레타, 루치아에 비해 갈라스가 맡았던 배역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역할이었다. 하지만 1955년에 녹음된 이 음원은 그가 노래하는 아이다 역시 출중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리처드 터커, 티토 곱비, 페도라 바르비에리로 이어지는 화려한 출연진과 거장 톨리오 세라핀의 지휘가 위대한 오페라에 걸맞은 위대한 연주를 만들어내었다.



Naxos 8.111070

데니스 브레인의 예술 (모차르트: 호른협주곡 1-4번, 호른 오중주)
데니스 브레인(hrn) / 필하모니아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필하모니아 관악앙상블 / 발터 기제킹(wf)
올해로 사망 50주기가 되는 데니스 브레인, 아직도 그의 명성을 능가하는 호른연주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카라얀이 반주를 맡았던 모차르트의 협주곡 시리즈는 이 연주자의 상징과도 같은 녹음. 마크 오버트 손의 뛰어난 복각을 통해 거듭났다. 더불어 1955년 발터 기제킹과 호흡을 맞추었던 같은 작곡가의 오중주도 함께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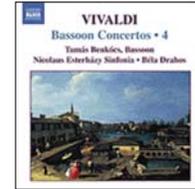
Naxos 8.557690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그리운 곳에 대한 추억,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일라 칼러(바이올린) /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이미 파가니니, 이자이 등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작품들을 통해 나소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비르투오조로 자리매김한 일라 칼러, 작년 내한공연을 통해 한국 애호가들의 환호를 받았던 그가 로맨틱 협주곡의 대명사인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에 도전하였다. 매력적인 소품들인 왈츠-스케르초, 감상적인 세레나데 외에도 작곡가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바이올린 연작 '그리운 곳에 대한 추억'을 글라우노프의 세련된 관현악 버전으로 함께 수록하였다.



Naxos 8.557251

부스테후데: 성악작품집 Vol.1
엠마 커크비(소프라노) / 존 할러웨이 & 만프레드 크레머(바이올린) / 얍 테르 린덴(비올라 다 감바) / 라스 울릭 모르텐센(하프시코드 & 오르간)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부스테후데 소나타 연작에 이어 홀러웨이/린덴/모르텐센 트리오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급 음반. 사발의 든든한 음악동료로 익숙한 바이올리니스트 만프레드 크레머와 더불어 바로크 소프라노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름인 엠마 커크비가 함께 하였다. 아직 미성을 간직하던 시절인 1996년의 녹음으로, 덴마크 다카포 레이블을 통해 발매되었던 음원을 재발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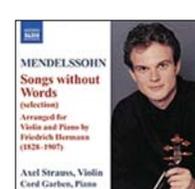
Naxos 8.557829

비발디: 바순협주곡 Vol.4 (RV481, 485, 477, 499, 470, 494)
타미슈 벤코츠(바순) / 니콜라우스 에스테르하지 심포니 / 벨라 드라호스
다양한 악기들을 위해 500편 이상의 협주곡을 남겼던 비발디. 저음역을 보충하는 악기였던 바순 역시 그의 손길을 거쳐서 화려한 독주악기로 거듭났다. 헝가리의 대표적인 바순주자이자 현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수석을 맡고있는 타미슈 벤코츠의 눈부신 기교가 비발디의 쾌활한 악상을 한껏 돋보이게 한다.



Naxos 8.111246

바흐: 바이올린협주곡 BWV1042, 모차르트: 바이올린협주곡 4번, 멘델스존: 바이올린협주곡
다비트 오이스트라흐(vn) /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 유진 오먼디
러시아의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오이스트라흐를 이제 나소스 히스토리컬을 통해 만난다. 오이스트라흐의 최전성기였던 1955년 미국에서 남긴 녹음으로 오먼디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멘델스존 협주곡은 그가 남긴 두 개의 공식녹음 중에서 나중의 것으로 오이스트라흐 특유의 아름다운 서정성이 잘 살아난 명연이다. 바흐와 모차르트는 공식녹음들 중 가장 시기적으로 앞선 기록들이다.



Naxos 8.570213

멘델스존: 무언가 발췌(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
악셀 슈트라우스(바이올린) / 코드 가벤(피아노)
무언가 연작은 멘델스존을 대표하는 피아노작품이다. 간결한 구성과 친근한 선율이 돋보이는 이들 작품들은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편곡 연주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친숙하다. 본 음반에는 19세기 후반에 활약했던 라이프치히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헤르만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편곡한 버전에서 22곡을 발췌 수록하였다. 1998년 에네스쿠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했던 독일의 신예 악셀 슈트라우스와 DG의 명프로듀서이자 지휘자라도 활약했던 코드 가벤이 함께 연주를 맡았다.



Naxos 8.570309

The Art of The Flute (모차르트, 쿨라우, 폴랑, 생상, 프랑사이)
볼프강 솔츠 & 마티아스 솔츠(플루트) / 마도카 이누이(피아노)
1970년부터 빈 필하모닉의 수석 플루티스트로 활약 중인 볼프강 솔츠의 예술세계를 담은 음반. 역시 빈의 중견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 중인 아들 마티아스와 빈 필의 수석 클라리넷주자인 페터 슈미들이 창조출연하였다. 볼프강 솔츠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K448이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작품으로 재탄생하였으며, 쿨라우의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폴랑의 플루트 소나타 등을 수록.



Naxos 8.570232

돌아오라 소렌토로(트럼본으로 연주하는 이탈리아노래들)

조셉 알레시(트럼본) / 워렌 존스(피아노) / 줄리어드 트럼본 콰이어 외

조셉 알레시는 뉴욕 필의 수석연주자이자 트럼본연주자로서는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했던 명연주가. 트럼본의 독특한 비음으로 연주되는 이탈리아 민요와 유명 이탈리아 오페라 아리아들이 색다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카페 앙상블, 스윙밴드, 트럼본 합주 등의 반주편성을 활용함으로써 트럼본의 다양한 개성을 돋보이게 배려하였다.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어떤 개인 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돌아오라 소렌토로 외



Naxos 8.557716

바이스 & 호프만: 류트와 만돌린을 위한 소나타

비르기트 슈바프 (류트 & 아치류트) / 다니엘 알레트 (만돌린)

바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레오폴드 바이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류트 연주자의 한 사람이었고, 이보다 한세기 뒤 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요한 호프만은 만돌린에서 유사한 평가를 받았던 음악가였다. 본 음반에서는 바이스의 류트 소나타와 호프만의 만돌린과 베이스를 위한 소나타 각 2곡을 류트(아치류트)와 만돌린이라는 독특한 발현악기 조합으로 연주하였다. 만돌린의 색다른 매력을 맛보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Naxos 8.111247

JS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파르티타 5번 (1954, 55년 녹음)

글렌 굴드 (피아노)

달리 설명이 필요없는 글렌 굴드의 데뷔 레코딩. 굴드의 최후의 녹음인 1981년의 골드베르크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 1955년 레코딩은 청년 굴드의 참신한 해석과 거침없는 도전정신을 유감없이 드러낸다. 또 다른 값진 선물이 함께 한다. 바로 1954년 캐나다 CBC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던 파르티타 BWV829번이 그것이다. 원 소스상의 문제로 파르티타 마지막 지그에서 약간의 음 손실이 있음.



Naxos 8.111248

베토벤: 교향곡 5번, 7번 (1955년 녹음)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 오토 클렘퍼러

수많은 역경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내었던 거장 오토 클렘퍼러. 미국땅 영국에서 본고장 독일의 정통 사운드를 멋지게 재현해내었던, 이 위대한 지휘자는 베토벤의 가장 인기 높은 교향곡 두 편에서 특유의 목직한 박력과 거대한 스케일을 펼쳐보인다. 두 교향곡 모두 1955년의 녹음으로 당시 모노버전과 스테레오버전이 동시에 발매되었으나, 본 음반에서는 보다 음질이 우수한 모노음원 쪽을 복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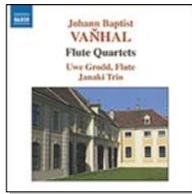


Naxos 8.570291

JS 바흐: 건반작품집 (반음계환상곡과 푸가, 아리아와 변주, 프랑스풍 서곡 외)

예뇌 안도 (피아노)

낙소스 피아노파트의 터줏대감이자 최고의 멀티플레이어 피아니스트인 예뇌 안도의 바흐 작품집. 유명한 반음계환상곡과 푸가 BWV903 외에도, 골드베르크변주곡의 프로타입 작품인 아리아와 변주곡 BWV989, 환상곡과 푸가 BWV904, 전주곡과 푸가 BWV894, 전형적인 바로크 춤곡 모음곡인 프랑스 풍의 서곡 BWV831을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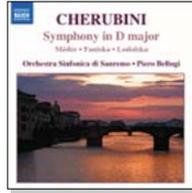


Naxos 8.570234

반할: 플루트 사중주 Op.7-2,3,6

우베 그로트(플루트) / 재너키 스트링 트리오

체코 출신의 반할(1739-1813)은 초기 빈 고전파의 대표적인 작곡가로 성장했던 인물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세 편의 플루트사중주는 모두 1771년 무렵에 작곡된 것으로, 우아한 선율과 플루트의 화려한 개인기에 초점이 맞추어진 매력적인 고전 실내악 작품들이다. 작년 경남공룡에서 입상했던 한국계 캐나다 첼리스트 아놀드 최가 단원으로 있는 재너키 트리오의 낙소스 데뷔음반.



Naxos 8.557908

케루비니: 교향곡 D장조, 서곡들(메데아, 파니스카, 로도이스카)

신라모 교향악단 / 피에로 벨루치

케루비니는 레퀴엠과 오페라 <메데아> 등으로 그 명맥을 잇고있는 형편이지만, 당대에는 베토벤, 슈베르트, 로시니 등으로부터 최고의 작곡가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 케루비니의 유일한 교향곡인 D장조 교향곡은 고전적 양식미에 충실한 작품으로 이탈리아인 특유의 유려한 선율이 돋보인다. <메데아>를 비롯한 3편의 오페라 서곡이 음반의 여백을 채웠다.



Naxos 8.557861

마르티누: 피아노 오중주 1,2번,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키엘 코사렉(피아노) / 마르티누 사중주단

400여편이 넘는 마르티누의 작품 목록 중에서 실내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본 음반에 수록된 피아노오중주 1번은 작곡가가 고향 보헤미아의 민속선율에 열중하던 시절의 작품. 초기 신고전주의 영향권 안에 있던 기간을 반영한다. 2차대전 중에 완성된 보다 큰 규모의 오중주 2번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작품. 2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는 바로크 스타일의 이색적인 작품이다.



Naxos 8.557981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1,2번, 야상곡과 타란텔라

일라 칼러(바이올린) / 바르샤바 필하모닉 / 안토니 비트

시마노프스키는 2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남겼다. 서정적인 1번은 절친한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파벨 코찬스키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간명한 텍스처가 인상적인 작품. 말년작인 2번은 폴란드 산악지역의 민요로부터 소재를 얻었다. 드뷔시와 중동민속음악의 영향이 함께 느껴지는 야상곡과 타란텔라는 화려한 기교과시에 적합한 쇼피시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일라 칼러의 최신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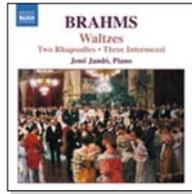


Naxos 8.557799

코렐리: 바이올린소나타 Op.5 Nos.7-12 (라 폴리아 포함)

프랑스와 페르난데즈 (바로크 바이올린) / 글렌 윌스 (하프시코드)

바로크 바이올린소나타의 규범을 완성했던 코렐리의 걸작을 18세기 오케스트라, 라 샤펠 트와얄 등의 악장을 거쳤던 정상급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프랑스와 페르난데즈와 저명한 음악학자 겸 하프시코드 연주자 글렌 윌슨이 함께 연주하였다. 특히 마지막 곡 <폴리아>는 수많은 바로크 바이올린 레퍼토리를 통해서도 가장 폭넓은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명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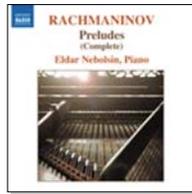


Naxos 8.570290

브람스: 2개의 랩소디, 왈츠 Op.39, 헨델 주제의 푸가와 변주곡

예뇌 안도 (피아노)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예뇌 안도의 최신작. 너무나 유명한 Ab장조의 곡을 포함하는 16곡의 왈츠는 원래 피아노 이중주를 위해 완성된 작품이나, 이내 피아노독주용으로 편곡되었다. 두 개의 랩소디는 관현악곡을 방불케하는 치밀한 텍스처를 보여주는 작품들. 헨델의 하프시코드 모음곡 중 에어에서 선율을 빌린 헨델 주제의 변주와 푸가는 동경하던 클라라 슈만에게 헌정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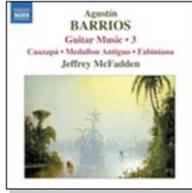


Naxos 8.570327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Op.23 & 32

엘다 네볼신 (피아노)

1903년과 1910년에 완성한 두 전주곡 시리즈는 라흐마니노프를 대표하는 피아노 솔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시리즈 포함 23곡의 전주곡은 Cb단조를 제외한 모든 조성에 걸쳐있는데, 이 음반에는 유명한 Cb단조의 전주곡 Op.3-2를 덧붙임으로써 바흐, 쇼팽, 쇼스타코비치 등의 작품들 처럼 모든 조성에 걸친 전주곡 세트를 완성하였다. 2005년 리히터 콩쿠르 우승자인 네볼신이 연주를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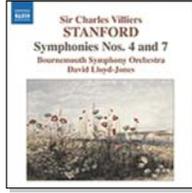


Naxos 8.557807

바리오스: 기타作品集 Vol.3

제프리 맥팔든 (기타)

파라과이 출신의 작곡가 아구스틴 바리오스는 사망 이후 30여년 동안 세인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이름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타연주자 출신 작곡가들 중에서 가장 출중한 이름으로 평가된다. 이 음반은 그의 소품들을 망라하였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의 caazapa, 한때 사랑했던 오페라가수가 착용했던 보석의 이름을 딴 작품인 Medallion Antiquo 등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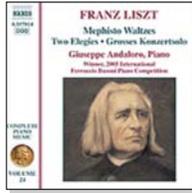


Naxos 8.570285

스탠포드: 교향곡 4번, 7번

데이비드 로이드 존스 / 본머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탠포드는 엘가 직전에 활약했던 가장 중요한 영국 작곡가의 한 사람이다. 그가 남긴 7곡의 교향곡은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의 영향이 짙게 느껴질 정도로 보수적인 악풍을 고수하고 있는데, 특히 간결한 7번 교향곡은 멘델스존 스타일의 경쾌한 악상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보다 큰 규모의 4번은 민요풍의 아름다운 선율과 비극적인 패시지가 절묘하게 조합된 걸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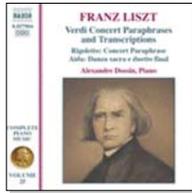


Naxos 8.557814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전곡, 2개의 엘레지, 그로스 콘체르트슬로

주제페 안달로로 (피아노)

리스트의 파우스트교향곡은 괴테의 동명 걸작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이지만, 피아노를 위한 4편의 메피스토 왈츠는 니콜라스 레나우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은 작품들이다. 마을 주막에서의 춤 '이라는 타이틀의 1번은 관현악비전으로도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리스트 특유의 현란한 초절기교가 빛을 발하는 난곡이다. 외향적인 메피스토왈츠와 대비되는 내면적인 두 개의 엘레지가 음반의 밸런스를 적절히 맞추고 있다. 2005년 부조니 콩쿠르 우승자 주제페 안달로로의 연주.



Naxos 8.557904

리스트: 베르디 오페라 파라프레이즈와 편곡작품들

알렉산드르 도신 (피아노)

리스트는 베토벤의 교향곡, 슈베르트의 가곡 등 수많은 다른 장르의 작품들을 피아노용으로 편곡했다. 자신과 활동시기가 거의 비슷했던 베르디의 오페라들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음반에는 '리골레토', '아이다', '일 트로바토레', '에루살렘-롬바르디 사람들', '돈 카를로', '시몬 보카네그라', '에르나니'의 선율을 토대로 리스트가 편곡한 기교적인 피아노 쇼피스트들 일곱 작품을 담았다. 2003년 아르헤리치 콩쿠르 우승자인 브라질 피아니스트 알렉산드르 도신의 연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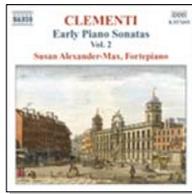


Naxos 8.570182

비탈리: 12개의 트리오 소나타 Op.1

젼퍼콘스트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1663-1745)는 '샤콘느' 한 곡으로 지금까지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작곡가이다. 최근 들어 '샤콘느'가 다른 사람의 작품일 것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곡가로서의 비탈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코렐리의 영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그의 트리오 소나타들은 작곡가로서의 그의 재능이 비범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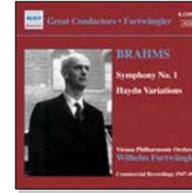


Naxos 8.557695

클레멘티: 5개의 초기 피아노 소나타 (1781-84)

수잔 알렉산더-막스 (피아노)

작곡가 겸 뛰어난 비르투오조였던 클레멘티는 빈에서 모차르트와 연주대결을 펼쳤을 정도로 당대에 명성이 자자했던 음악가였다. 그는 백편이 넘는 건반소나타를 남겼는데, 본 음반에는 1780년대에 완성된 초기작 5편을 수록하였다. 피아노의 표현능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했던 이 작곡가의 재능이 잘 드러나는 작품들로, 아름다운 칸타빌레와 기교과시용의 현란한 패시지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Naxos 8.110998

브람스: 교향곡 1번, 하이든 변주곡 (1947, 1949년 녹음)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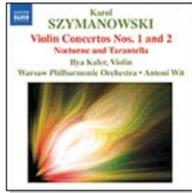
연주금지가 해제된 바로 그해에 빈에서 남긴 교향곡 1번의 녹음은 푸르트벵글러가 스튜디오에서 남긴 대표적인 브람스 교향곡 음반이다. 그간 테스타먼트, 프라이어 등 전문 복각레이블을 통해서도 발매되었던 음원이나, 워드 마스톤의 빼어난 복각을 거친 이번 발매반 역시 푸르트벵글러 마니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1949년 역시 스튜디오 녹음인 하이든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 커플링되었다.



**Naxos Sampler
2007 2nd
New Releases**

- 01 **8.557625-26 Johann Sebastian Bach(1685-1750) :**
Prelude No.1 in C major *from* The Well-Tempered Clavier Book 1
Luc Beausejour (cemb)
- 02 **8.570234 Johann Baptist Vanhal(1739-1813) :**
Cantabile *from* Flute Quartet in Bb major Op.7-2
Uwe Grodd (fl) / Janaki String Trio
- 03 **8.557593-94 Francois Andre Danican Philidor(1726-1795) :**
Ouverture *from* Carmen Saeculare
Orchestra della Svizzera Italiana / Jean Claude Malgoire
- 04 **8.570260 Francisco Asenjo Barbieri(1823-1894) :**
Bailete *from* Don Quijote
Orquesta de la Comunidad de Madrid / Jose Ramon Encinar
- 05 **8.557724 Ludwig van Beethoven(1770-1827) :**
Scherzo *from* Piano Trio in Eb major Op.1-1
Xyryon Trio
- 06 **8.557911-12 Alberto Ginastera(1916-1983) :** Milonga
Fernando Viani (pf)
- 07 **8.570291 Johann Sebastian Bach(1685-1750) :**
Gavottes I & II *from* Overture in French Style BWV831
Jeno Jando (pf)
- 08 **8.557848 Ferruccio Busoni(1866-1924) :**
Wiener Tanzweise *from* Four Bagatelles Op.28
Joseph Lin (vn) / Benjamin Loeb (pf)
- 09 **8.559277 Scott Joplin(1868-1917) :**
Rag Time Dance - A Stop Time 2 Step
Benjamin Loeb (pf)
- 10 **8.559329 Carson Cooman(b.1982):**
Keep on Shining *from* Sonata for Violin & Organ Op.573
Rachel Gough (vn) / Rupert Gough (org)
- 11 **8.559320 Louis Moreau Gottschalk(1829-1869) :**
Festa Criolla *from* Symphonie Romantique 'A Night in the Tropics'
Hot Spring Festival Symphony / Richard Rosenberg
- 12 **8.557799 Arcangelo Corelli(1653-1713) :**
Gavotta *from* Violin Sonata No.10 in F major
Francois Fernandez (vn) / Glen Wilson (cemb)
- 13 **8.570222 Giuseppe Tartini(1692-1770) :**
Allegro *from* Violin Concerto in E major D.50
Ariadne Daskalakis (vn) / Cologne Chamber Orchestra / Helmut Muller-Bruhl
- 14 **8.570339 Gustav Holst(1874-1934) :** Finale *from* St. Paul Suite Op.29
English Sinfonia / Howard Griffiths
- 15 **8.557908 Luigi Cherubini(1760-1842) :**
4th Mov. *from* Symphony in D major
Orchestra Sinfonica di Sanremo / Piero Bellugi
- 16 **8.557923 Joaquin Rodrigo(1901-1999) :**
Tarde en el parque *from* Tres Evocaciones
Artur Pizarro (pf)
- 17 **8.570020 Jean Sibelius(1865-1957) :** Finlandia-Humni
Hannu Jurma(te) / Jouni Somero (pf)
- 18 **8.660179-82 Richard Wagner(1813-1883) :**
Funeral March *from* Gotterdammerung
Staatsorchester Stuttgart / Lothar Zagrosek

그라모폰 2007년 7월호 Editor's Choice



Naxos 8.557981

시마노프스키: 바이올린협주곡 1, 2번, 야상곡과 타란텔라

일리아 칼레르(바이올린) / 바르샤바 필하모닉 / 안토니 비트

시마노프스키는 2편의 바이올린협주곡을 남겼다. 서정적인 1번은 절친한 친구였던 바이올리니스트 파벨 코찬스키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간명한 텍스처가 인상적인 작품. 말년작인 2번은 폴란드 산악지역의 민요로부터 소재를 얻었다. 드뷔시와 중동민속음악의 영향이 함께 느껴지는 야상곡과 타란텔라는 화려한 기교과시에 적합한 쇼피시다.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우승자 일리아 칼레르의 최신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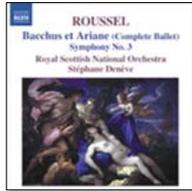
Dacapo 6.220521

닐센: 현악사중주 Op.13 & 44, 현악오중주 (Hybrid-SACD)

영 데니쉬 스트링 콰텟 + 팀 프레데릭센 (비올라)

덴마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칼 닐센은 교향곡과 오페라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자신의 음악적 개성을 표출하였다. 본 음반에 수록된 2편의 현악사중주와 그의 유일한 현악오중주는 그가 남긴 실내악 작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4명의 실내 연주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영 데니쉬 사중주단은 트론트하임 실내악 콩쿠르, 덴마크 음악평론가 상 등을 석권하면서 나이를 초월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단체다.

Classicstoday 10/10



Naxos 8.570245

루셀: 교향곡 3번, 〈바쿠스와 아리안느〉 모음곡 1,2번

스테판 드네브 /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저명한 프랑스 작곡가 루셀의 대표작 두 곡을 수록하였다. 교향곡 3번은 20세기에 완성된 가장 위대한 프랑스 교향곡으로 칭송받는 걸작으로, 작곡가의 신고전주의적인 음악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2막의 발레에서 발췌한 〈바쿠스와 아리안느〉 모음곡에서는 작곡가의 색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빛을 발한다. 로얄 스코티시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상임으로 취임한 프랑스의 젊은 지휘자 스테판 드네브의 낙소스 데뷔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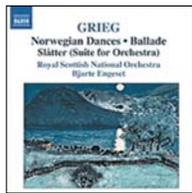


Naxos 8.557824

차이코프스키: 피아노협주곡 2번, 콘체르토 판타지

콘스탄틴 세르바코프(피아노) / 러시아 필하모닉 / 드미트리 아블론스키

피아노협주곡 1번의 유명세에 완전히 가려진 비운의 작품이지만, 차이코프스키의 두 번째 피아노협주곡의 느린 악장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선율미는 각별하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만들어내는 농밀한 서정미만으로도 이 협주곡은 일침의 가치가 있다. 글로렌슈필과 탕부랭 등의 독특한 울림을 활용한 콘체르토 판타지 역시 부당하게 평가절하되었던 흥미로운 작품.



Naxos 8.557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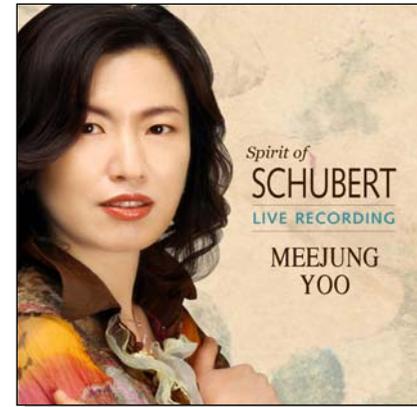
그리그: 노르웨이 춤곡, 발라드, 장송행진곡 외

로얄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 / 바르테 앙게세트

그리그의 음악세계의 근간에는 노르웨이 민속음악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본 음반은 그리그의 관현악 소품들 중에서도 가장 민족적인 색채가 짙은 작품들을 골라 담았다. 노르웨이 민속 바이올린인 하딩거로 연주하는 춤곡을 일컫는 '슬로터', 4곡의 노르웨이 민속춤, 장송행진곡과 혼례행렬 등의 생활사와 관련된 작품들을 망라하였으며, 서정모음곡 중의 '중소리'의 관현악 편곡은 원곡을 능가하는 서정미를 보여준다.

중견 피아니스트 유미정이 읽어주는 슈베르트의 영혼

유미정 MEEJUNG YOO



미국 피바디 음대와 예일 음대에서 공부했고, 국내외 수많은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는 단국 음대 피아노 교수인 유미정의 매혹적인 슈베르트 음반.

음원은 2006년 늦가을 금호 아트 홀에서 슈베르트의 음악만으로 공연했던 내용이다. 유명한 D.664 소나타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주옥같은 명곡들을 가지고 천재의 '순수영혼'을 날날이 읽어준다.

지난 2004년 '모차르트 음악지도'라는 테마로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완주한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2005년에는 금호 아트 홀에서 '모차르트 스페셜 콘서트'라는 부제로 독주회를 가졌으며, 금호 클래식 라이브 컬렉션 주관 하에 실황 음반이 제작되었다. 이 실황 음반에 관하여 줄리앙 마틴(줄리어드 음대)은 "모차르트 음악의 완성적 해석, 다양한 뉘앙스를 구현한 탁월한 피아니스트"라 평하였으며, 클로드 프랭크(예일 음대)로부터 "정확성과 완벽함을 넘어서 그 이상의 연주"라는 호평을 받았다.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예원학교를 마치고 서울예고 2학년 재학 중 도미하여 피바디 음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 음대에서 Artist Diploma를 취득하였다. 이화경향 콩쿨, 한국일보 콩쿨을 비롯하여 Elizabeth Davis Memorial 콩쿨, Performers of Connecticut, Peabody Yale Gordon 콩쿨, Ohio Youngstown Orchestra 콩쿨, 워싱턴 국제 콩쿨 등에서 입상하였다. Younstown Symphony Orchestra(지휘; David Effron)와 협연하였고, Emmanuel Ax's Master Class(John F. Kennedy Center)와 Walters Art Gallery(Baltimore, Maryland) Concert Series 에서 연주하였다.

국내에서는 KBS 교향악단, 대전시향, 강릉시향, 제주시향, 성남시향과의 협연을 비롯하여 예술의 전당 주최 유망신예

초청연주회와 젊은 연주자 시리즈, 피아노 음악 초청 젊은 피아니스트 기획연주회, 예음 클럽 초청 실내악 연주, 미추홀 주최 청소년 음악회, Joy Classic 주최 피아노 독주회, EBS 共感 콘서트, 금호 아트 홀 초청 독주회 등 활발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스페인에서 개최된 'New Millennium International Piano Festival'에 초청 교수로 참가하여 현지에서 독주회를 가졌다.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연세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하였고, 경원대 겸임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Peter Frank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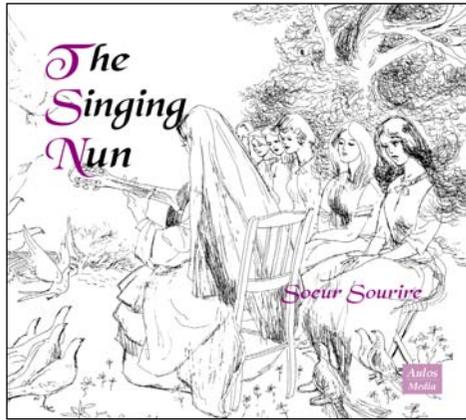
"피아니스트 유미정은 아름다운 모차르트 음반을 내놓는데 이어, 인상적인 슈베르트 음반을 출시하였다. 이번 음반에는 그 유명한 A major sonata에서 시작해 그의 몇몇 후기 작품들, 그리고 뛰어난 가곡 편곡들에 이르기까지 슈베르트의 다양한 천재성에 대한 유미정의 이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연주가 담겨져 있다. 이 슈베르트 실황 음반은 듣는 사람에게 무한한 기쁨을 선사하리라 확신한다."

Fernando Lares

"피아노와 음악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가진 열정적 연주이다."

노래 잘 하던 한 수녀의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베스트 셀러

수에르 수리르 The Singing Nun(노래하는 수녀)



60년대 빌보드 차트 1위!!!
엘비스 프레슬리의 인기를 높였던 바로 그 노래들

- 70년대 번안가요로 큰 인기를 얻었던 타이틀곡 <도미니크>
- 방송에 나오면 문외파 쇠도했던 노래들. 하지만 정작 구할 수 없었던 음반
- 4곡이 보너스 트랙으로 추가
-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운 재킷. 프랑스어 가사와 한글 번역 포함
- 수녀의 생활모습을 그린 여러 스케치들

노래 잘 하던 한 수녀

벨기에 도미니크회 피세몽(Fischermont)수녀원에 한 수녀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자닌 데케르(Jeanine Deckers). 그녀는 노래를 좋아했다. 수녀원에서 노래를 만들고 그것을 기타로 반주하며 동료들한테 들려주었는데, 꽤 인기가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노래에 완전히 매료된 동료 수녀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수녀원에서는 그녀의 노래가 해외 선교 활동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녀에게 앨범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그 수녀는 1963년에 한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하는 수녀(The Singing Nun)'였다. 녹음은 1961년 브뤼셀에 있는 필립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필립스 기술진은 그녀의 순결하면서 강렬한 흡인력을 가진 음성을 듣고 잠시 어안이 병병해졌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2년 후에 발매될 그 한 장의 LP가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 음반에 실린 그녀의 노래들은 미국인들의 감성을 단번에 휘어잡았다. 특히 한국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도미니크'였다. 독특하게 명랑하고 묘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그 노래는 미국 빌보드 차트를 금세 석권했다. 수녀의 노래라는 사실은 홍보에 분명한 도움이 되었고, 그녀

노래의 독특한 감성과 빛깔은 미국인들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던 것이었다. 앨범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명성은 전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평범한 '노래하는 수녀'가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스타덤에 올랐던 것이다. 이때 앨범에서 썼던 그녀의 이름은 '미소를 지닌 수녀'라는 뜻의 '수에르 수리르(Seur Sourire)'였다. 그녀의 노래가 전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자, 그 주인공을 불러오려는 세속의 손길이 수도원까지 뻗어왔다.

수녀는 더 이상 수녀원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서둘러 콘서트를 열어야 했고 1964년에는 인기 텔레비전 버라이어티 쇼로 23년간이나 장수하게 되는 에드 셸리번 쇼(Ed



Sullivan Show)에까지 출연해서 대중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어야 했다. 1965년에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토대로 한 영화까지 만들어졌다. 그녀와 비슷한 연배의 여배우 데비 레이놀즈(Debbie Reynolds)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영화의 제목 역시 '노래하는 수녀(The Singing Nun)'였다. 이 즈음 그녀의 인기는 너무도 높아 치솟아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였다. 이제 그녀의 이미지는 확실히 대중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연히 성직의 길을 걷던 사람. 자신의 이야기가 대중매체에 그렇게까지 많이 회자되는 일이 그리 달가울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영화에는 호기심이 당겼지만, 정작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녀는 스토리가 너무 가공적이라는 이유로 그것 역시 탐탁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지만 노래하는 수녀는 자신이 점점 예측하지 못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신의 모습은 엄격한 수녀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의 그것이지 아니었다는 반성을 하고 그녀는 공연활동을 접었다. 그리고 1965년 다시 수녀원에 들어가 신앙생활에 몰두했다. 글썽 이야기가 여기까지로 끝났으면 어땠을까?

나는 대중적 스타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길에 있는 곳인데, 환하게 비치는 빛만 보고 따라갔던 나비의 그것 같았다고나 할까? 물론 그녀 안에는 그 환한 빛을 좇게 만든 근원적인 힘이 있었다. 그것은 이제까지 신앙생활과 계속 공존해왔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다. 성직에 대한 신실한 열망 외에 '애초부터' 하나 더 갖고 있었던 그녀의 열정은 당시 LP에 동봉된 해설 책자의 첫 단락에서 쉽게 그리고 충분히 기늬된다.

“오래 전 한 어린 소녀가 브뤼셀의 한 음악 상점 밖에서, 쇼윈도우에 있는 기타를 쳐다보며 몹시 갖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 손에 남은 것 몇 페니를 가지고 그녀는 그 악기를 사버렸다”

열정은 결국 그녀로 하여금 수도원을 떠나게 만들었다. 대신 콘서트를 열어 벌어들이는 수입은 대부분 수도원에 기증했고, 그녀는 즐겁게 노래만 했다. 그런데 더 크고 긴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수는 대중의 취향이나 요구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좋아했던 것은 노래뿐, 명성이나 인기도 아니었고, 돈은 더군다나 아니었다.





물론 대중적 취향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르면 되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수녀가 얼마나 비대중적인 인물이며 대중적 시선을 원천 차단하면서 노래했는가는 1967년 두 번째로 내놓은 그녀의 앨범제목을 봐도 감지할 수 있는데, 그것은 'I am not a Star', 즉 '나는 스타가 아니에요'였다. 이것이 빅 히트 음반을 낸 가수가 그 후속으로 내놓은 앨범의 제목이었다. 대중 앞에 선 가수의 그런 태도는 당연히 달리는 말에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채우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부하가 걸린 말은 이내 속도가 떨어졌고 결국 멈춰서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녀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었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란 어렵지만, 두 번째 앨범이 나온 후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은근히 불안했지만, 그렇다고 수녀원 생활로 복귀하지는 않았다.

가슴 아픈 이야기

당시 교회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점점 회의를 느끼고 있었던 그녀는 수녀원에 들어가는 대신 10년 지기였던 아니 페셰(Annie Pescher)와 함께 자폐증 아이를 위한 학교를 설립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그녀는 심각한 고뇌에 싸이게 되었다. 세금문제로 벨기에 정부는 그녀와 싸움을 걸었고, 수녀는 번 돈을 거의 수도원에 보냈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에 시달리며 고통 받던 수녀는 어느 날 친구 페셰와 동반자살을 한다. 1985년의 일. 당시 그녀의 나이는 52세였다. 인기, 명성,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래가 좋아서 가수로 활동했던 수녀. 환하게 미소 띤 얼굴로 노래만 하고 싶었던 한 순수한



영혼이 속세의 사건에 연루되어, 그것도 어릴 때부터 평생 무관심하기로 결심했던 돈 때문에 어처구니없이 스러진 실화다. 그리 길지 않았던 그녀의 일생을 돌아보면,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의 '도미니크'란 노래가 그리 밝게만 들리지 않는다. 그녀가 세상을 하직하며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간다. 하느님만이 우리를 파산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가슴 한 구석을 다시 아프게 한다! 글/ 이성일

The Singing Nun

Soeur Sourire



[수록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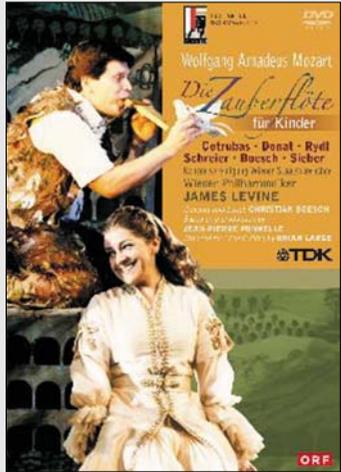
- 01 Dominique 도미니크
- 02 Soeur Adele 아델 수녀
- 03 Fleur de Cactus 선인장 꽃
- 04 Complainte de Marie-Jacques 마리-자크를 위한 슬픈 노래
- 05 Je Voudrais 내가 되고 싶은 것
- 06 Tous Les Chemins 모든 길
- 07 Plume de Radis 플럼 드 라디
- 08 Mets ton Joli Juppon 예쁜 스커트를 입어라
- 09 Resurrection 부활
- 10 Alleluia 알렐루야
- 11 J'ai Trouve Le Seigneur 나는 주님을 발견했네
- 12 Entre Les Etioles 별들 사이에서

- Bonus tracks -

- 13 Je Ne Suis Pas Une Vedette 나는 고속정이 아니에요
- 14 Bain De Soleil 일광욕
- 15 Avec Toi 그대와 함께
- 16 Je Voir 그대를 보면



TDK DVD



TDK DVWW-OPMFC

모차르트: 마술피리

거장 장-피에르 포넬이 재구성한 어린이용 <마술피리> <마술피리>는 대표적인 가족 오페라다. 아린아이부터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오페라란 얘기다. 모차르트가 가입했던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심오한 상징을 담은 작품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 흥미진진한 동화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공연장에서 방학 시즌이면 <마술피리>를 어린이용으로 재구성하여 공연하곤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작품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의 거장 연출가 장 피에르 포넬은 1978년 잘츠부르크 여름 페스티벌에 어린이용 <마술피리>를 선보여 큰 찬사를 받았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아홉 시즌동안 연속으로 공연되었을 정도. 게다가 완전한 풀 프로덕션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것과 함께 만들어서 무대장치와 드라마로서의 수준은 풀 프로덕션과 큰 차이가 없다.

본 영상물은 1982년 8월 26일 실황을 담은 것이며 페터 슈라이어, 일레이나 코트루바스, 쿠르트 리들 그리고 지휘자 제임스 레바인 등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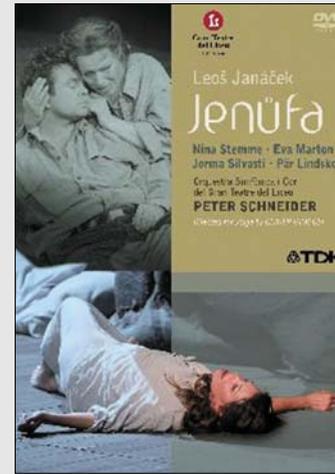
일급 출연진이 어린이들을 위해 연주한다. 곡의 순서도 바꾸고 음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보다 닷새 전에 공연된 풀 프로덕션도 TDK 레이블의 DVD로 발매되어 있다.

[추가자료]

○ 프랑스의 오페라 연출가 장-피에르 포넬(1932~1988)은 폭넓은 상상력에 기초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몬테베르디, 모차르트, 로시니의 오페라에 일가견을 가졌으며 아기자기한 장면에서 더욱 창의력을 발휘했다. <마술피리> 또한 그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었다.

○ 어린이용 <마술피리>에서 포넬은 단순한 생략으로 극의 무게를 줄이지 않았다. 파파게노 역을 부른 크리스티안 보에슈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여 노래 순서를 바꾸어 극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에슈가 일종의 나레이터처럼 활약한다. 이를 테면 테너가 그 유명한 '아름다운 초상'을 부르기 이전에 보에슈는 팝송 '온리 유'를 부르며 다음에 불릴 노래가 오페라에서의 '온리 유'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포넬도 수시로 무대에 등장하여 효과를 배가시킨다. 포넬은 단순한 어린이용을 위한 압축이 아니라 이 오페라의 극적인 약점을 희석하는 방향으로도 진행되었다.

○ 출연가수들의 수준이 높은 점도 놀랄만하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타미노의 한 사람인 페터 슈라이어가, 그리고 가장 사랑스런 소프라노로 칭송받았던 일레이나 코트루바스가 파미나를 부르는 것이다.



TDK DVWW-OPJENU

야나체크: 예누파

처절한 드라마를 서정적으로 그려낸 야나체크의 대표 오페라 모라비아 태생의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1854~1928)는 9개의 오페라를 작곡했으며 이중 <예누파>, <카타 카바노바>, <영리한 암여우 이야기>, <마크로폴로스 사건>, <죽은 자의 집에서>는 20세기 오페라의 걸작으로 꼽힌다. 이중에서도 첫 걸작인 <예누파>가 최고의 인기작이다.

이 오페라의 원제는 <그녀의 양녀>이다. 여기서 양녀는 예누파이므로 딸과 계모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예누파는 사촌인 스테바 부리야를 사랑하여 그의 아이까지 뺏지만 버림받는다. 또 다른 사촌인 클레메뉴가 예누파를 사랑하는데 격한 질투심이 발동한 바람에 예누파의 얼굴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힌다. 예누파는 계모의 도움으로 몰래 아이를 낳지만 계모는 클레메뉴와 맺어주기 위해 아이를 살해하고 만다. 두 사람의 결혼 직전에 영아 살해가 밝혀지는데 예누파는 계모를 용서하고 클레메뉴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줄거리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웨덴 소프라노 니나 슈테메의 아름다움과 투명한 음색이 돋보이는 2005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극장 실황이다. 환갑을 넘친 대스타 에바 마르톤이 전처의 딸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계모 역을 열창한다. 올리비에르 탐보시의 연출은 대단히 극적이고 무대도 동유럽의 전원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추가자료]

○ 레오시 야나체크는 우리나라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동유럽 오페라를 대표하는 거물 작곡가이다. <예누파>는 그의 첫 성공작인데 당시 나이가 50세에 달했을 정도로 뒤늦게 오페라 작곡가로 명성을 얻었다. 특히 동화적인 소재부터 심각한 심리극에 아르기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오페라를 써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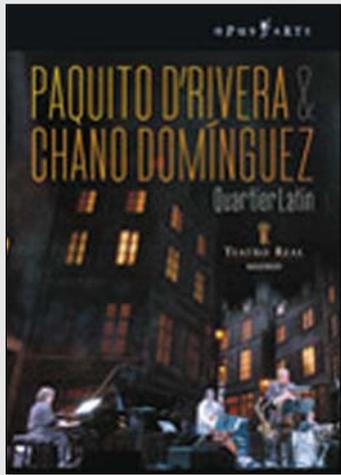
○ 전설적인 소프라노 비르가트 닐손의 뒤를 이을 것으로 기대되는 스웨덴 소프라노 니나 슈테메는 아주 다양한 레퍼토리를 섭렵한 뒤 2003년 글라인트론 페스티벌에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불러 스타로 등극했다. 2007년 글라인트론 페스티벌에서 같은 역을 다시 부를 예정이다. 슈테메는 최근 취리히 오페라에서 <아이다>를 불러 영역을 더욱 넓혔으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아리아와 리트를 담은 첫 독집을 EMI에서 출판했다. 아름다운 용모와 지적인 스타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Janacek Jenufa

Opus ARTE
www.opusarte.com

Opus Arte DVD

“이렇게 감동적인 재즈공연을 보는 것은 축복이다”



Opus Arte OA 6001D

파쿠이토 드리베라 & 차노 도밍구에스: 감동적인 라틴 재즈 공연

- 현재 최고의 아티스트 드리베라와 도밍구에스가 주인공
- 세계적인 라틴 재즈 퓨전 재즈의 진수
- 보사, 룸바, 블루스, 솔레아 그리고 클래식 레퍼토리까지

안방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세계 최정상급의 퓨전 재즈를 만끽할 수 있다니! 정말 영광으로 가득찬 콘서트 현장이다! 스페인 출신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새로운 플라멩고 사운드'를 창조해낸 인물로 추앙받는 차노 도밍구에스, 쿠바의 베테랑 색소폰 연주자인 파쿠이토 드리베라가 두 주인공이다. 그들과 호흡하는 악단은 퍼커션, 드럼, 베이스, 플라멩고 퍼커션으로 무장한 라틴 사중주단.

먼저 차노 도밍구에스가 Por alegrías를 약 10분가량 신나게 연주한 후 파쿠이토 드리베라가 클라리넷을 들고 나타난다. 보사곡인 'I remember Dizzy'를 악단과 함께 연주하는데, 처음부터 대가들의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돈다. 두 사람이 주인공이지만 사중주단의 활약 또한 대단하다. 특히 'Rumba pa' jerry'에서 퍼커션과 드럼 주자의 흥겹고 완벽한 호흡의 연주는 정말 보고 듣는 즐거움을 흠뻑 준다. 두드러지는 두툼한 손에서는 신기에 가까운 정도의 묘기가 흘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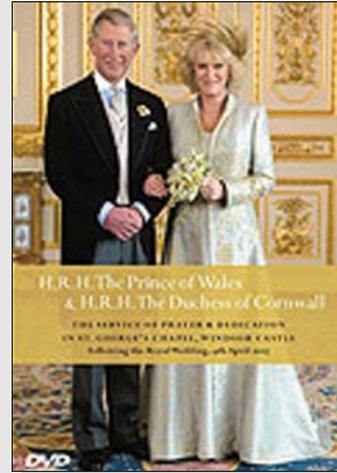
이 영상물에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 가운데 최고가 아닌 것은 없지만, 특히 룸바 곡에서 이 라틴 연주자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다. 피아니스트와 타악기가 뜨겁게 고조된 후 색소폰이 가세해서 마무리하는데, 청중들의 열광적인 박수가 현장의 흥분을 가득 전한다. 푸치니의 선율을 편곡해서 드리베라의 매혹적인 클라리넷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Aria de Musetta'도 가슴에 잔잔하게 스민다. 한편 무겁고 심각한 솔레아 'Ami Padre'로도 경쾌한 볼레리아 'Vamonos pa' Cai'로도 한바탕 흥분을 자아낸다. 듀크 엘링턴의 'Don't get around much anymore'를 연주하면서 콘서트는 서서히 마무리되는데, 드리베라는 피아니스트 차노 도밍구에스뿐만 아니라 단원들을 한 명씩 일으켜 세우며 관중들의 박수를 받게 한다.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환호를 견디다 못한 관중들은 커튼콜을 두 번이나 요청한다. 이런 류의 어떤 재즈 콘서트보다도 감동적이다! 물론 폭발적인 찬사를 얻었다.

“따스하고, 강렬하고, 마술적이다... 이 공연은 라틴 재즈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EL MUNDO

“그들이 연주할 때 불가사의한 어떤 작용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말로도 이날 밤 공연경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 콘서트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 하늘님께 감사한다...” -EL PAIS

Paquito D'rivera & Chano Dominguez

Quartier Latin



Opus Arte R090405

Royal Wedding 로열 웨딩

- 세기의 결혼
영국 찰스 왕세자와 콘월 공작부인의 2005년 결혼 축복 예배 현장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
- 세계적 관심 불러일으킨 영국 찰스 왕세자의 2005년 결혼식 장면
-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연인관계였던 한 여인과 골인하게 된 찰스 왕세자의 아련한 결혼식
- BBC Opus Arte가 독점 공급하는 로열페밀리 영상
- 여왕 엘리자베스 2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부부 등 귀빈 8백여명이 참석한 성대한 로열 웨딩, 축하예배
-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한 결혼 축하 예배
- 월턴, 맥스웰, 그리그, 알비노니, 바흐, 헨델 등의 장중하고 매혹적인 합창곡과 기악곡 연주가 함께한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찰스 왕세자의 세속 결혼

찰스 왕세자의 30년 여자친구 커밀라(콘월 공작부인)와의 세속 결혼식의 중요행사였던 결혼 축하예배 현장을 스케치한 영상물이다. 다이애나를 떠나보내고 오랜 여자친구인 이혼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 때문에 정통 교회의식이 아닌 세속 결혼식을 올리고, 이어서 축하예배를 진행했었는데 그때의 모습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부부 등 귀빈 800여명이 참석한, 좀처럼 보기 드문 '세기의 결혼' 현장을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이다.

이 영상물과 얽힌 영국 왕실의 “세기의 불륜 스토리”

이 DVD는 영국 찰스 왕세자와 그의 오랜 여자친구 커밀라 파커 볼스의 결혼식 날의 모습을 담은 귀한 영상물. 결혼식은 2005년 4월 9일 토요일 낮 12시 30분경 윈저 시청 대강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졌고, 결혼식을 올린 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윈저 캐슬의 성 조지 채플에서 결혼 축복 예배를 올렸는데 영상물은 바로 그때의 모습들을 담은 것이다. 두 사람의 결혼은, 잘 알려진 대로, '세기의 불륜'이 골인한 것이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와 살면서도 계속 커밀라와 불륜의 연인관계를 유지해왔었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사건.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찰스가 다이애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커밀라와 연인이었으며, 일찍이 찰스 왕세자비가 될 수많은 양가 규수들 가운데 다이애나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던 사람도 바로 커밀라였다는 사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와 사는 것과는 별도로 커밀라와 30년간이나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이다. 잘 아는 대로 아름다운 외모와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했던 다이애나는 1997년 찰스와 이혼하고 나서 이집트 계 재벌 2세와 파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중 파파라치에 쫓겨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나자, 찰스와 커밀라의 불륜이 새로이 불거져 나왔고 두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비난여론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오랜 사랑은 끝내 결실을 맺었다. 이 축하예배에는 앞서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부부 등 귀빈 700여명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이 영상물은 그 귀한 사람들과 생생한 현장을 좋은 화질로 만나볼 수 있다. 크리스토퍼 워렌-그린이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연주를 맡았고, 성 조지 채플 합창단이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했다. 월턴의 모음곡이 귀빈들이 도착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이어 그리그, 알비노니, 그레차치노프의 음악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축복 예배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든다. 재킷 사진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누가 봐도 정상적인 결혼은 아니었다. 검은 연미복을 입은 57세의 찰스 왕세자는 많이 늙어 보이고, 긴 드레스에 깃털 장식의 모자를 쓴 커밀라도 젊은 시절의 미모가 거의 사라진 모습이다. 왕세자와 결혼하면서 콘월 공작부인(Her Royal Highness the Duchess of Cornwall)이라는 직함을 얻었기 때문에 재킷에는 커밀라란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두 사람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다는 소식까지 도착해있는 상태이지만, 세계적인 불륜의 당사자인 두 사람 얘기는 어제도 오늘도 끊이지 않는다. 왕족을 포함한 많은 귀빈들의 옷차림이나 표정까지 세세하게 스케치되었는데, 좀처럼 보기 어려운 '로열페밀리' 영상이다.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5,000개 음반 / 210,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2,0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밸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히르켈리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카밀라 수산 하우크의

시와 매혹적인 재즈 선율로 가득한 음반

Camilla Susann Haug

카밀라 수산 하우크



FXCD315

NOEN GANGER BLÅTT

섬타임스 블루

오랜 시간 재능있는 아티스트들과 활동해온 그녀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음반의 선율은 모두 카밀라가 썼고, 가사, 즉 시편들 가운데 일부도 그녀가 마련했다.

〈집으로 가는 길〉, 〈놀라움〉, 〈안단테〉, 〈아파트〉, 〈한밤중에〉, 〈안녕〉, 〈비〉, 〈밤에 깨어나〉, 〈유령〉, 〈바람의 노래〉, 〈아침〉, 〈날 사랑하세요?〉 등 참신한 재즈풍의 곡들이 감동을 준다.



Kirkelig kulturverksted



표지사진
일리아 칼레르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7년 7월호
통권 제 24호 발행 : 2007년 6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대)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